

2015년 고고학체험교실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어린이 발굴학교> 운영 결과

2015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참가하여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재발굴에 대해서 홍보하고 유물 만들기 체험을 통해 고고학이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목곽묘 모형을 직접 제작하여 발굴현장의 모습을 재현하였고, 학술자료인 시대별 토기편을 전시하여 일반인들에게 유물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모형의 금관, 곡옥 목걸이, 전통문양가방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